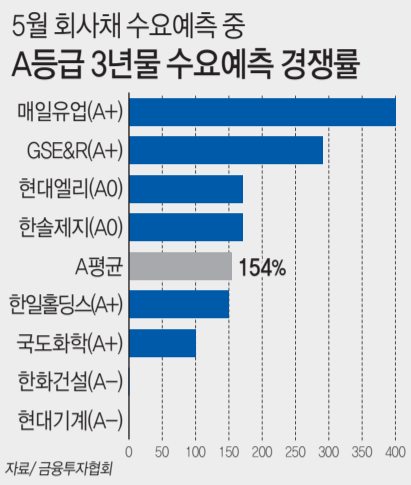


빙하기 벗어난 회사채... 초우량 기업에만 돈 몰려 '양극화'

“투뿔 아니라고 거들떠도 안보네요” A등급 회사채의 설움

(AA등급)

발행시장 우량채 풀림현상 여전 'AA' 수요예측 평균경쟁률 2.7배 한화건설 등 'A-' 줄줄이 미매각 '부익부 빈익빈' 현상 불가피 전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극단적으로 얼어붙었던 회사채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회사채 시장에 대한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투자심리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지만 기업들의 실제 체감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 AA+등급이나 우량 대기업 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회사채에는 수요가 대거 몰렸지만 비우량 등급 회

사채는 수요가 없어 전망 미달 사태를 빚기도 했다.

정부가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당분간 이들 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냉랭할 전망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자금 조달이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회사채 수요예측 평균 경쟁률은 AA등급의 경우 3년물 기준으로 2.7배를 기록했으며, A등급은 1.5배 수준에 그쳤다.

AA+등급의 삼천리 회사채 수요예측에는 모집액의 5배가 넘게 몰렸다. AA+등급의 현대백화점과 SK, AA-등급의 LGCNS와 대림산업, 현대트렌시스 역시 경쟁률이 4대 1을 모두 웃돌았다.

AA등급에서 수요예측이 미달된 곳은 KCC 한 곳 밖에 없었다.

반면 A등급 가운데서는 A+등급 매입유업의 수요예측 경쟁률이 4대 1을

기록했지만 A-등급의 한화건설과 현대기계는 줄줄이 미매각을 기록했다.

삼성증권 김은기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4월 채권시장안정펀드가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안정됐고, 선제적인 회사채 시장 지원 방안이 나오면서 3월 회사채에 대한 극단적인 회피 현상이 선택적 수요로 변했다”며 “5월 중순 이후 쏟아지는 회사채 발행 물량에 투자자들이 선별적으로 대응하면서 종목별로 수요예측 경쟁률이 양극화를 보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4일 회사채 시장 지원 방안을 처음 내놓은 이후 매월 추가 지원방향을 밝혔다.

초기 채안펀드를 중심으로 한 AA 등

급 위주의 지원에서 A등급 이하의 비우량 회사채까지 크게 확대됐고, 직접 저신용 회사채나 CP를 매입하기 위한 기구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시장 수요는 우량 회사채로만 쏠리는 상황이다.

회사 신용등급에 따라 수요가 양극화돼 회사채 시장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실제 비우량 회사채 매입에 대한 자금이 집행되더라도 시장금리 수준보다 낮게 매입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저신용 등급 회사채·CP 매입 기구도 시장금리에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하는 가산 수수료를 추가하는 형태로 운용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A등급 크레딧 스프레드가 축소되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재난지원금 효과에 체감경기 사는데... 임금 부담 '여전'

5월 체감지수 상승...전통시장 호전 中企 80%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지난 2~3월 당시 나락으로 떨어졌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통시장의 회복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한 임금 상승 부담은 어느 때보다 큰 모습이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예로 들어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관측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소상공인



지난 1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2400곳, 전통시장 1300곳을 대상으로 '5월 경기동향조사(BSI)'를 실시해 1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체감지수는 88.3으로 4월의 73.8보다 14.5포인트(p) 늘었다. 특히 전통시장 체감지수는 109.2를 기록하며 전월(80.0)보다 29.2p 증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들어 체감지수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 3월 당시 29.7, 전통시장은 이보다 1개월 빠른 2월에 23.9로 각각 바닥을 쳤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소강→재확산→소강 등 장기화되는 가운데에서도 위축됐던 움직임이 다소 풀리고, 소비

도 조금씩 살아나며 체감경기 역시 덩달아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소진공은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한 긴급재난지원금과 상품권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소비가 증가해 5월 들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가 호전된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6월 전망지수는 소상공인이 98.9, 전통시장이 103.2로 5월의 99.5, 104.5에 비해 다소 주춤했지만 기준점인 100을 육박하거나, 이를 뛰어넘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한쪽에선 미약하나마 훈풍이 불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들은 종업원에게 주는 임금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 조사'를 실시해 이날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8%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7.3%는 '인하'를 각각 꼽았다.

최저임금에 대한 이같은 부정적 답변은 중기중앙회가 지난 5년간 실시한 의견조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응답 중소기업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44%는 '신규채용 축소'를, 14.8%는 '감원'을 하겠다고 답했다. 전체의 58.8%가 최저임금 상승시 '고용 축소'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금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마이너스 성장이 전망될 정도로 우리 경제와 고용수준이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노사정이 일자리 지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보다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하는데 합의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훈 기자 bada@

aT가 함께 합니다

지속가능한 우리 농어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국민의 내일을 위한 aT 혁신

보다나온 우리 농식품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대표전화 061-931-1114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